

35년 화장실 칸막이 외길... 황토 '테라보드'로 새 길 도전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박진수 큐시스 대표

국내 화장실 칸막이 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오고 있는 건자재기업 큐시스가 황토를 사용해 불에 잘 견디고 몸에 좋은 '테라보드'로 다시 한번 승부수를 걸고 나섰다.

박진수 대표가 87년 큐시스를 창업, 35년간 외길을 걸어오며 지도에 없는 길을 개척해온 가운데 화장실을 벗어나 사무실, 집, 학교, 체육관 등 다양한 공간의 실내벽과 천장 등에 쓰이는 친환경 마감 패널을 새로 내놓으면서다.

22일 큐시스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동아전람이 부산 벡스코에서 주최한 '제6회 부산 건축박람회'에 황토로 만든 테라보드(Tera board)를 선보이면서 시장의 이목이 큐시스에 쏠리고 있다.

박진수 대표는 "전통자재인 황토는 특징점이 많고 준불연 건축재료이지만 건식공법에 맞는 보드 형태로 가공이 어려워 벽이나 천장 패널로 사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3층 적층구조 제조방법과 특수조건 아래에서 72시간 양생법을 적용해 친환경 판재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토는 알다시피 습도·온도 조절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 몸에 해로운 포름알데히드도 방출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국내 큐비클 시장 선도... 업계 1위 사업 초기 납품 하청 서러움 등에 화장실 칸막이로 자체 브랜드 도전

인천공항·김포공항 등에 납품 '황토', 준불연·친환경·통풍 강점 벽·천장 마감재 테라보드 선보여 "1등 이뤘으니 또 다른 도전 하고파"

통풍성, 원적외선 배출, 공기정화 기능, 항균성 등이 장점이다.

전원주택에 황토방을 하나씩 만들어 건강을 지키려는 수요가 많은 것도 바로 황토의 이같은 장점 때문이다.

큐시스의 테라보드는 굵지 않고 양생을 통해 판재의 특성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황토와 산화마그네슘, 목분 등을 적절히 배합해 1·2·3차로 쌓아올려 강도를 극대화한 동시에 황토 판재의 기능에도 충실하도록 했다.

박 대표는 "테라보드 개발 과정에서 준불연 시험, 친환경 시험, 항균 시험, 항곰팡이 시험 등을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공신력을 갖춘 여러 기관에서 총 24가지의 시험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준불연, 친환경, 디자인, 항균 기능 등을 두루 갖춘 테라보드는 실내 벽체마감을 위한 패널이나 벽·천장용 흡음재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다.



박진수 큐시스 대표.

특히 테라보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공법을 선택할 수 있어 시공이 편리하고, 여러 마감형태로 공급이 가능해 활용도가 매우 넓다.

박 대표는 사업 초기엔 부엌가구 등을 만들어 이름을 대면 알만한 브랜드 가구제조사에 납품하는 일을 했다.

"사업을 하긴 하지만 내 자신이 계속 하청만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서러움도 많이 받았다. 내 브랜드를 갖고 사업을 다시 하자며 당시엔 브랜드조차 없었던 '화장실 칸막이'를 아이템으로 잡았다. 화장실 칸막이 만큼은 대한민국 1등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다."

박 대표가 40년 가깝게 훌쩍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봤다.

'칸막이로 만든 작은 방'을 뜻하는 큐비클(cubicle), 그것도 사람들은 무심코 넘길 수 있는 화장실용 큐비클로 '서러움'을 만회하고자 다짐한 것이다.

회사명 큐시스(QSYS)는 '큐비클 시스템'의 약자다.

큐시스는 박 대표가 꿈을 꾸 그대로 실제 화장실용 칸막이 시장에서 1등 자리에 올랐다. 2021년 조달청 주주금액 기준이다.

▲하부방수패널 '더존' ▲절전 화장실 칸막이 '하이큐' ▲사용자 중심의 회

전도어 화장실 칸막이 '라운지' 등이 그동안 큐시스가 관련 분야에서 이룬 성과들이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의 화장실에서 이용객들의 '비밀'을 지켜주는 칸막이는 거의 대부분이 큐시스 제품이다. 롯데타워 전망대에 있는 둥근문 형태의 화장실 칸막이 역시 큐시스가 납품한 것이다.

박 대표는 "화장실 문과 칸막이는 잦은 물청소로 인해 습기와 물기가 침투해 하부가 쉽게 썩고 전염성 세균도 서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화장실 전용 방수패널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것도 큐시스"라면서 사람 좋은 표정으로 활짝 웃었다.

관련 기술들은 특허로, 이를 접목한 제품들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도 등록돼 있다.

그렇다고 큐시스가 화장실 칸막이에만 몰두했던 것도 아니다. 화장실 칸막이마다 전등을 자동으로 키고 끌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도 그중 하나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전원컨트롤 시스템은 대기전력을 낭비해 에너지를 줄이는데도 매우 효과적이다.

"화장실 칸막이 시장에서 1등을 했으니 또다른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황토를 이용한 친환경 판재인 테라보드가 우리 큐시스의 도전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제품이 될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진공, 우간다에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 한국이 '청년 창업 요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아프리카 우간다에 전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1일 오전(현지 시간) 우간다 캄팔라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문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식에서 (앞줄 왼쪽 7번째) 김학도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이영 "중소 제조사 디지털 전환 강력 추진"

(중기부장관)

취임 후 첫 지방행보로 창원 방문 스마트공장 구축사들과 간담회 "하반기에 세부 추진 방안 마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는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 영세 제조업체 특화지원, 협업기업 간 스마트공장 연결, 전문인력 양성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국정과제로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2일 경남 창원에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삼현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제조업 규모가 세계 5위인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경제의 핵심으로 스마트공장 관련한 세부 추진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이 취임 후 첫 지방 행보로 찾은 삼현은 전기·수소차용 구동모터, 전동차 액추에이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특히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서 생산성은 15% 늘고, 원가는 10%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 제품 불량률은 26% 감소했다.

특히 2019년 당시 199명이던 종업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여섯번째)이 22일 경남 창원 스마트공장 삼현에서 열린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이 올해 6월 기준으로 157명까지 늘어나는 등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는 삼현 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엠에스이, 텔릭스, 현대정밀, 나노아이텍 대표들이 함께 했다.

간담회는 스마트공장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제조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 기업들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의 지속적인 추진,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 및 장기 재직 유도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 2년 넘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 지원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승호 기자

오늘의 날씨

6월 23일 (木)
음력: 5월 25일

수도권 날씨
23~25°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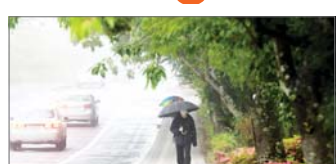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11 | 해질 / 19:57

연천 20/25, 동두천 20/24, 가평 20/24, 서울 23/25, 양평 21/25, 수원 22/25, 용인 22/25, 평택 21/26, 파주 20/24, 백령도 18/22, 인천 21/2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기후위기 취약계층 '폭염 대비' 돕는다... 환경부, 맞춤형 지원
▲ 오늘부터 전국장마 시작... 수도권 등 강수량 최대 100mm /사진 뉴시스

▲ 5년간 골다공증 환자 31% ↑... 정형외과학회 관절·척추건강 생활수칙 발표
▲ 환경부, 홍수취약지구 433곳 등 장마철 대응체계 점검



▲ GS홈쇼핑 '카드할인' 66억원 부가세 소송... 2심도 승소
▲ 성신여대, 크로아티아에 '리예카 세종학당' 설립 /사진 뉴시스